

朴 “친일·독재 미화 예단 말라”…文 “거대한 절벽 마주한 느낌”

빈손으로 끝난 청와대 회동

野 “교과서 국정화 철회” 압박
朴 “노동개혁·경제법 빠른 처리”
별도 합의문 없이 회동 끝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청와대 5자 회동은 예상대로 성과 없이 서로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나 연말 정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새누리당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다음달 중 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처리에 대한 야당과의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으나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은 없었다.

문재인 대표는 회동 직후 “한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였다”며 “모처럼 회동을 통해서 국민께 아무런 희망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었다”며 “딱 하나 일치된 부분이 있었다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대립은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테이블에 앉고, 함께 입장했던 여야 당직자들이 퇴장하면서 본격화됐다.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문 대표가 먼저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뒤이어 발언한 이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이후 이들은 30분 동안 토론에 가까운 국정교과서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외면한 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사실 지금 집필진 구성이 안 됐고 단 한 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예단해서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한 울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 산적한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아”고 가세했다.

경제활성화도 주요 쟁점이었다.

여권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화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해 하루빨리 비준동의을 요청한다”며 “특히 한중 FTA의 경우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하루 약 40억 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지는 만큼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비준동의의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작년처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예산이 느장 처리돼 제대로 안 되면 서민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전통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회동 직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한 경제살리기 의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이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특히 최대 화두인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견만 확인했다. 야당이 아직까지는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극한대치를 계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추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간 ‘3+3 회동’을 통해 각론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국정교과서 논란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통하면 나라 일도 잘 풀려” 시작은 덕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청와대 회동 시작은 부드럽게 시작했다. 이날 회동을 앞두고 형식과 의제를 놓고 이날 오전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가벼운 농담과 웃는 낯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3시 정각에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회의실에서 오픈 미소를 띠며 기다리다 여야 지도부가 들어오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원탁 테이블에 앉기 전 4분여간 환담을 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오늘 우리 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들 사이가 좋으신 것 같다. 귀속말도 하시고...”

라며 “반갑게 아주 오랜 친구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건가”라고 웃으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님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지 않나. 제 이름에는 ‘유’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건넸다. 박 대통령은 “서로 잘 통하시면 그만큼 나라 일도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함께하고, 또 웃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합의에 이르고 하는 것이...(좋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을 화제에 올려 대화를 이어갔다.

대변인 배석·모두발언 공개 놓고 신경전 ‘팽팽’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오후 회동은 회담 형식을 놓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대변인의 배석 여부, 모두발언 공개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맞서며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청와대는 기탄없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양측 대변인 없이 회담을 진행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


연합은 대변인을 배석시키는 게 관례이자 정석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발언 역시 청와대는 같은 취지에서 비공개, 새정치연합은 관례에 따른 공개를 각각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과거 회동에서 양측의 브리핑 내용에 차이가 나 불필요한 오해만 유발한 사례가 있었고 야당이 언론브리핑과 모두발언 등을 통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한 탓이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국정화 포기’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때문이었다. 이에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말 쪼잔한 청와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동 무산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새정치연합이 결국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회담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의 내일에 국민의 말씀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입니다.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대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수립에 활용됩니다.


인터넷 조사


2015.10.24 ~ 10.31

방문 면접조사

2015. 11. 1 ~ 11. 15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분석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등



주관 ▶ 통계청  실시 ▶ 지방자치단체

2015 Census